

5. 천사와 다른 우주 사람에 대한 이야기

2012. 1. 29.

금빛 새벽 진리와 은혜의 시간을 애청하시는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을 맡은 김명호 목사입니다. 김영진 목사입니다.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은혜 중에 평안 하셨습니까? 오늘은 성경에 사람을 구원하는 사건이 왜 발생했는지 그 동티난 사실을 근원부터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천사와 우주의 다른 세계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두어 번 계속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유의해서 들으시면 성경 속의 새로운 세계를 만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 안에 탐험되지 않는 미지의 세계입니다. 말씀 CD를 원하시면 나성중앙교회 박진용 목사님께서 연락하시면 보내 드립니다. 626-374-9480번으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시8:4,5] 사람이 무엇이관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관대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5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1. 목사님, 지난 시간에 죄의 발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다가 시간 때문에 못했는데, 그것이 하늘에서 시작되었고, 루시퍼가 제 지위를 지키지 않고 제 자리를 떠나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처럼 말씀하셨지요. 오늘 그 문제를 풀어나가 보시지요.

답: 그렇게 합시다. 오늘은 천사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사람에 대한 성경의 이야기로 넘어가봅시다. 그것 역시 예언의 책인 성경에 중요한 내용 중에 속하니까요. 먼저 천사 창조에 대한 말씀을 좀 찾아보지요. 오늘 본문은 천사 창조에 대한 것이 포함된 말씀이지요. 사람을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지었다고 했으니 천사는 사람보다 조금 낮게 지었다는 뜻이 되지요. 우주에는 여호와라 이름하신 하나님 외에는 어떤 것이라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조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요한의 표현대로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는 말이지요. 그러므로 당연히 천사도 여호와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그런데 천사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기능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마태22:30에 보면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천사는 결혼하는 일이 없다는 말씀이 되는데 그러므로 천천만만 천사들은 출생으로 존재한 것이 아니고 모두 창조주께서 친히 창조하셨다는 뜻이 되지요. 그러니까 천사는 개별적으로 창조된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2. 사람은 흙으로 만들었다고 했는데, 천사들을 개별적으로 창조하실 때는 일일이 흙으로 창조하셨을까요?

답: 성경에 천사 창조에 대한 자세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지 않으니까 잘 모른다는 것이 정직한 대답이 되겠지요. 그러나 암시적인 말씀은 있습니다. 시편 104편 4절인데요, “바람으로 자기 사자를 삼으시며 화염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라고 하셨습니다. 여기 바람으로 사자를 삼으시며라고 한 “삼다”는 말이 히브리어로 “아사”인데 만들다는 뜻입니다. 창2:2,3에 지으시고 만드시고

라고 번역된 말이 다 “아사”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시104:4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바람으로 천사를 만드셨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지요. 이 구절에 대한 해석들이 많이 있지만, 지금 제가 말하는 것처럼 해석하지는 않나 봐요. 그러니까 천사는 바람과 불꽃으로 창조하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화염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는다는 말은 아사가 아니고 샤라트인데 그것은 봉사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앞에 아사를 중심으로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바람과 불꽃으로 천사들을 창조하셨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6장에 스랍 천사에 대한 말이 있는데, 스랍이라는 말이 불꽃과 관계있는 말이니까 불꽃으로 천사를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상당히 합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바라처럼 불처럼 부리시는 것 같습니다. 히1:7에는 시104:4을 뒤집어서 인용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만든 재료에서도 사람과 천사는 차이가 나고 사람을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지었다는 말씀이 딱 맞는 말이지요.

3. 그 천사의 우두머리가 루시퍼였겠지요. 그런 그가 왜 교만해졌을까요? 왜 하나님과 동등하려고 했을까요? 그것이 참 미스터리입니다.

답: 그 정확한 대답은 하나님 외에 누가 하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사실들을 모아서 퍼즐을 맞춰볼 수 있지요. 아주 정확하게 딱 들어맞지 않을 수는 있지만 말입니다. 창조주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지요. 그들은 유일한 이름 여호와이십니다. 여호와라는 말은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이니까 삼위가 다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말입니다. 이 사실은 마태 28:19에 잘 나타나 있지요. 아버지 아들 성령이 한 이름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거기 이름이라는 말은 단수입니다. 그 이름이 바로 여호와이지요. 이 삼위가 다 스스로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분은 보이는 형상으로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지요. 요1:18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고 하셨습니다. 보이는 하나님은 독생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줍니다. 빌2:6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고 했고, 히1:3에는 본체의 형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나 천사나 그 외모는 다 보이는 하나님이신 독생자의 모양이라는 것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지요. 그런데 천사들을 만드시고 아마도 하나님의 나라이니까 질서와 조직이 있지 않겠습니까. 피조물인 천사들의 조직에서 루시퍼를 덮는 그룹으로 임명하셨지요. 겔28:12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성경에서 기름 붓는다는 것은 임명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계명성이라는 칭호를 주시고 아주 찬란하게 치장하신 것 같아요. 겔28:12이하에 보면 그렇습니다. “네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마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었음이여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예비되었도다 14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임이여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화광석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얼마나 아름답고 찬란한 치장입니까 게다가 계명성이라는 칭호에 또 기름까지 부었습니다. 그리고 보니 이 루시퍼의 눈에 창조주이신 독생하신 하나님과 자기의 모습이 아주 같아 보였지요. 여기서 문제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4.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까요? 우쭐해서 교만해진 것입니까?

답: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미 지난 번 어느 시간에 말씀 나누었지요. 루시퍼의 정죄가 교만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성경에는 여호와 회의가 있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렘23:18입니다. “누가 여호와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이 말씀은 여호와 회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 회의 장소가 어디일까 하는 것은 이사야 14:12~14을 읽으면 알 수 있지요. 목사님이 읽어보시겠습니까?

[사14:12~14]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엮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13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 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집회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14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이 말씀에는 집회의 산이 있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거기가 여호와 회의 장소가 확실하지요. 왜냐하면 루시퍼가 그 산 위에 좌정할 생각을 했는데, 거기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루시퍼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자기 처소를 떠나 집회의 산에 좌정할 생각을 한 것이 곧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과 동등하겠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만이지요. 피조물이 자기를 창조한 창조주와 동등하겠다는 생각을 했으니까요. 삼위일체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중에 말씀 하나님으로 불리시는 분은 루시퍼를 지극히 사랑하신 것이 확실해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칭호 중에 몇을 그에게도 주었거든요. 에스겔 28장에 있는 말씀을 이미 읽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기름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말씀 하나님도 그랬고, 계명성 곧 새벽별이라는 칭호도 예수 그리스도의 칭호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분이 루시퍼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루시퍼가 이 말씀 하나님과 외형상으로나 칭호상으로 같다는 것은 자기가 여호와 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게 한 것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이 사실을 에스겔 28:15절과 17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네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네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네가 아름다우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네가 영화로우므로 네 지혜를 더럽혔음이여.”

5. 하나님께서 그런 생각을 하는 루시퍼를 그냥 두셨을까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권고하지 않았을까요? 사랑의 하나님께서 루시퍼가 그런 생각하는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을 아시는데, 방치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만.

답: 당연히 하나님께서 특히 말씀 하나님께서 그런 생각을 하지 말라고 권고했지요. 그런 짐작을 할 수 있는 것이 창세기 3장에 사람이 선악과를 먹은 후에 사람을 찾아와서 만나서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오셔서 그렇게 한 이유를 묻습니다. 그런데 뱀에게는 아무런 질문을 하지 않고 선고를 합니다. 이런 과정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뱀에게도 당연히 왜 여자를 꺾었느냐고 물어야지요. 그런데 전혀 묻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뱀은 사단이고 마귀라고 계시록에 그 정체를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루시퍼가 하늘에서 그런 교만한 생각을 했을 때, 하늘에서 있을 곳을 찾지 못하게 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루시퍼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고 권고를 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서 저지른 일에 대하여 다시 묻지 않은 것이지요. 창세기 3장의 기록으로 이런 이해는 성경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간절히 권고했는데도 그는 끝까지 듣지 않고 말씀 하나님께 대들었던 것 같아요. 어찌면 이렇게 대들지 않았나 생각해봅니다. ‘당신이나 나나 모양이 똑 같은데 어떻게 당신은 여호와이고 나는 아니라는 말이에요. 당신이 여호와라는 사실을 한 번 증명해보시오.’ 말씀 하나님은 이성이 있는 인격적 피조물을 말씀 하나님의 외모와 같이 창조한 것을 분명히 말해줬겠지요. 루시퍼가 일부러 듣지 않기 위하여 역지를 쓰는 것이니 듣지 않고 마침내 전쟁을 걸었습니다. 자기 말을 따르는 천사의 무리가 전체의 3분의 1이나 되니 해볼만하다고 생각한 것이지요. 그러나 그는 말씀 하나님께 져고 하늘에서 쫓겨난 것입니다. 사단이 된 것이지요. 사단이라는 말은 대적하는 자라는 뜻이고 마귀라는 말은 쫓겨난 자라는 뜻이 됩니다.

6. 그렇게 상당히 성경적으로 합리적인 추리가 되는군요. 그런데 목사님, 왜 이 지구로 와서 사람을 유혹했습니까? 지구 외에 다른 세계에는 지구와 같이 사람을 창조한 천체는 없었습니까?

답: 성경을 잘 읽으면 사람과 같은 존재가 사는 지구 외에 다른 천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번 성경을 살펴보도록 하지요. 먼저 욥기 1:6과 2:1을 봅시다.

[욥1:6]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왔는지라.

[욥2:1]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이 말씀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여호와 앞에 모인 사실을 계시했지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 일까요? 많은 주석가들이나 신학자들이 천사들이라고 해석하지요. 그런데 신약성경 히1:5을 보면 천사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일이 없다는 뜻의 말씀이 있습니다. 볼까요.

[히1:5]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천사 중 아무에게도 “내가 내 아들이라”하신 일이 없다는 것을 가리키는 말씀 맞지요? 그렇다면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는 원칙으로 볼 때 욥기의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가 아닌 것은 확실합니다. 다시 욥38:4~7을 봅시다.

[욥38:4~7]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5 누가 그 도량을 정하였었는지, 누가 그 준승을 그 위에 띄웠었는지 내가 아느냐 6 그 주초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은 누가 놓았었느냐 7 그 때에 새벽 별들이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쁘게 소리하였었느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기쁘게 소리했다고 가르칩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지구 창조보다 먼저 창조된 사람들이 확실합니다. 누가복음 3장 38절을 읽으면 아담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욥기에 말한 하나님의 아들들은 지구보다 먼저 창조된 어떤 세계의 사람들인 것이 확실하지요.

7. 참 재미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하나님 앞에 모였으며 사단은 왜 거기에 왔습니까? 사단도 여호와 하나님 앞에 수시로 드나들 수 있는지요?

답: 참 희한하지요. 왜 사단이 거기 왔을까요. 하늘에 있을 곳을 얻지 못하고 쫓겨났는데 말입니

다. 성경은 그런 문제에 대하여 확실한 대답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잘 생각지 아니한 성경 속의 새로운 세계입니다. 이제 목사님과 제가 그 세계를 탐험하고 있는 셈인데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른 우주의 사람들이라는 것부터 그렇지요. 정말 성경을 성경이 인도하는대로 잘 따라가면 성경 속의 새로운 세계를 탐험하는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이제 사단이 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아들들과 함께 있게 되었는지 성경의 인도를 따라가 봅시다. 먼저 히12:22,23을 읽어보실까요? 목사님이 봉독하시지요.

[히12:22,23]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 산과 살아 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23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이 말씀에 보니까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가 있습니다. 무슨 이유로 총회를 하는지는 모르지만 장자들의 총회가 있는 것은 확실하지 않습니까? 장자들이라고 했으니 장자가 하나뿐인 것이 아니지요. 그러면 누가 장자일까요? 이 지구의 장자는 아담이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아담이 이 지구의 장자입니다. 그러니까 장자들은 우주 세계에 지구와 같이 사람들을 창조하여 살게 한 여러 우주 세계가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 사실은 에베소 3:14,15에 있습니다. “이러하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15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보십시오.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셨다고 했지요. 하늘에도 여러 족속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계시해줍니다. 이 족속들의 장자들이 여호와 앞에 모여서 회의를 하는 것을 장자들의 총회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지구의 장자 아담도 참석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담은 선악과를 먹었을 때 이 지구의 장자권은 사단에게 넘어간 것입니다. 사단은 예수님 앞에서 이것을 당당히 주장합니다. 눅5:5,6입니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6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 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마귀는 천하만국을 자기에게 넘겨준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예수께서 그 주장에 이의를 달지 않았지요. 마귀가 지구의 장자권을 넘겨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회의장에 지구 장자 자격으로 참석한 것이지요. 마귀는 십자가에서 완전히 패배하기 전까지 이 회의에 참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와 부활로 예수께서 지구의 만아들의 자리를 탈환하셨습니다. 히브리서는 그 사실을 잘 가르쳐줍니다. 히1:6이지요. “또 만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저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만아들은 예수님입니다.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천사들이 경배할 것이라는 의미이지요. 예수님은 지구의 장자로서 지구를 사단에게서 완전히 접수하러 오시는 것이지요.

사단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사망을 폐하시고 사망의 권세 잡은 마귀를 없이하시는 일을 하신 다음 부활하여 이제는 우주 장자 총회에도 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은 히2:14과 계12:10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번 읽어보지요.

[히2:14]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매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계12:10]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예,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사망하심으로 사망의 세력 잡은 자 마귀를 없이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이제 하나님 면전에 나갈 수 없이 욕을 참소하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참소하는 것도 못하게 되었지요. 사단이 하나님 앞에 드나들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것을 못하지요. 이제 모든 것이 구주 예수 여자의 후손으로 세상에 오셔서 세상을 구하신 예수님에게 돌아갔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예수를 진심으로 구주로 믿으면 그는 사단의 권세에서 놓여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됩니다. 우주 세계의 거민들과 만나는 특권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애청자들께서는 성경에 기록된 이 새로운 세계에 저희들과 함께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주 거민들에 대한 성경의 기록을 이해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8. 물론 애청자들께서 잘 이해하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아는 것이 성경 예언을 이해하는데 필요합니까? 좀 복잡한 것 같이 느껴지는데요.

답: 그런 느낌이 있겠지요. 그러나 예수님의 구원 사업은 이 우주 세계 거민들에게도 영향을 끼칩니다. 사단이 미가엘과의 전쟁에서 패배하고 쫓겨난 후에 곧장 지구로 왔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것을 알 수 있거든요. 우리가 성경 예언을 연구하면서 이런 사실을 말하는 것은 구원에 대한 성경 예언의 배경을 바르게 아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시단이 되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하기로 하고 기도로 마치지요.

기도: 하늘에 계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경으로 이런 비밀을 알게 하셨으니 감사하오며 이런 것을 아는 특권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이 놀라운 구원을 반드시 얻게 하시고 믿음으로 오늘도 이기게 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